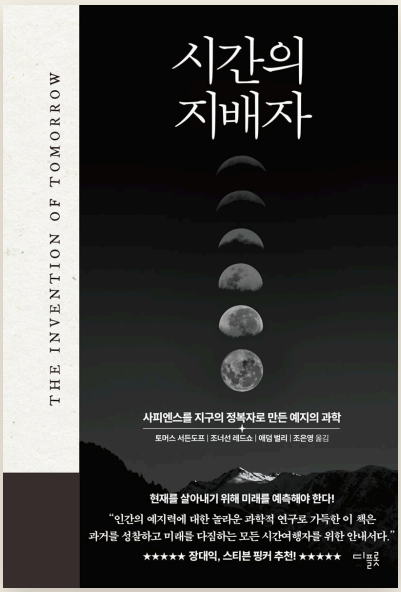


오프모임 · 2024년 10월 12일 · 17명

시간의 지배자

미래를 내다보는 동물

토머스 서든도프의 『시간의 지배자』를 들고 가을 오후에 직접 만났습니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가르는 '앞을 내다보는 힘'에서 시작해 기억과 자유의지, 시간의 속도, 그리고 5년 뒤의 나에게 건네고 싶은 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동물	인간을 가르는 건 미래를 그리는 힘
기억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기억을 마음대로 다시 쓴다
시간의 속도	새로운 날은 길게 남는다
5년 뒤의 나에게	열정이 있을 때 비전을

토머스 서든도프 외 『시간의 지배자』로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오프모임에서 모였습니다. 5장과 6장부터 읽고 다시 1장으로 돌아가는 순서로, 두 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을 내다보는 동물

첫 질문은 동물도 미래를 내다볼까였습니다. 동물도 겨울을 대비하고 규칙을 따라 살지만, 그건 의지로 미래를 그리는 것과는 다르다는 이야기. 결국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건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힘이라는 데 뜻이 모였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의 시간으로 보면 겨우 '2분 전'에 나타났다는 대목도 함께 읽었어요. 찌르기보다 먼저 던지는 도구를 만들고, 도구를 들고 다니면서 문화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 자원이 한정된 곳에서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상대가 먼저 나를 해칠 것"이라는 홉스의 함정, 그 함정을 넘어 협력과 혁신으로 살아남은 인류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지나간 일이든 다가올 일이든 누구나 고민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기억은 미래를 위해 있다

책은 기억이 과거를 보관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려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억이 있어야 다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은 디지털 기기와 메모에 다 맡기라고 하지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불안하다는 분, 너무 많이 기억해야 해서 차라리 잊고 싶다는 분이 함께 웃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있는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살아남는 데 유리하게 마음대로 다시 쓴다는 대목이 인상적이었어요.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아예 기억이 사라지기도 하고, 잠이 모자라면 오래 남을 기억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나쁜 기억은 좋은 기억으로 덮어 가며 사는 것, 무너질 것 같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날이 오는 것. "사피엔스가 현명하다는 건 이런 뜻 아닐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유의지는 얼마나 자유로울까

자유의지 이야기에서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등장했습니다. 평소의 습관과 유혹 앞에서 하는 선택이 정말 자유의지일까. 우리는 스스로 골랐다고 생각하지만,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늘 영향을 받습니다. 아기는 18개월쯤 흉내 내기로 상상력을 기르며 생각의 틀을 만들고, 자라면서 가장 어려운 건 결국 유혹을 참는 일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은지 손을 들어 보기도 했고, 마음을 계속 누르고 맞추기만 하면 언젠가 한 번에 터진다는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왜 빨리 가고, 왜 느리게 갈까

책의 제목처럼 시간 이야기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즐겁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는 시간이 금방 가지만, 돌아보면 그날들이 오래 기억에 남아 길게 느껴진다는 것. 익숙한 날은 빨리 흘러가 버리고, 낯선 날은 길게 남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으면 하는 사람과 느리게 갔으면 하는 사람은 지금 삶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명상을 하며 시간이 빠르다 느리다를 잊는 순간, 그 자리에 머무는 안정감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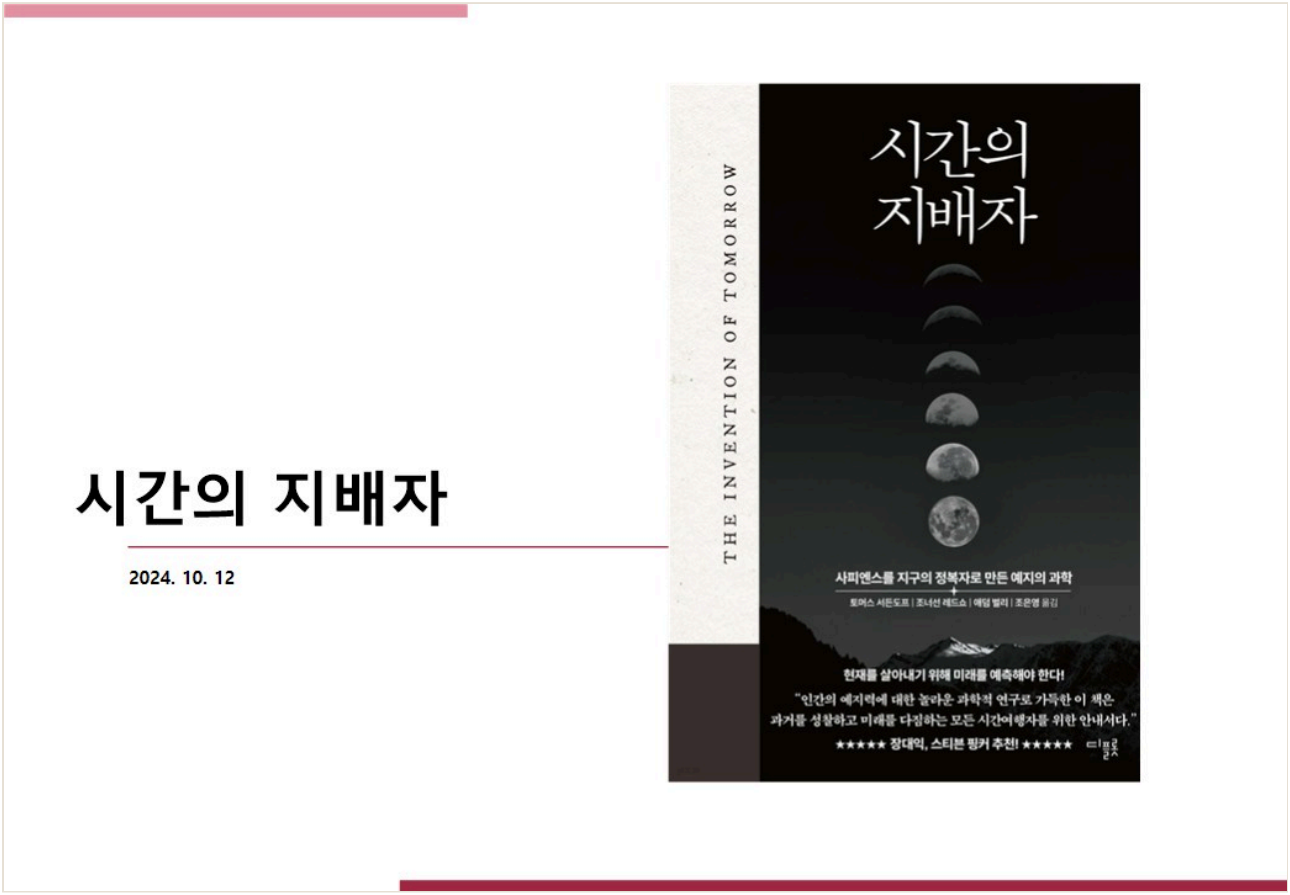
5년 뒤의 나에게

마지막 질문은 "5년 뒤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은가"였습니다.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젊은 날의 나와도 비교하지 말고, 너는 아름답다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늘 있으니, 어제의 나를 뛰어넘는 내가 되자." 열정이 있을 때 비전을 세워 두지 않으면 열정은 금방 사라지고, 열정이 식었다 싶으면 새로운 걸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최악의 선택이나 실수라고 생각했던 일이 지나고 보니 나만 겪을 수 있었던 경험이 되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 놓더라는 고백, 과거의 후회가 결국 더 나은 결정을 만든다는 책의 말이 겹쳐졌습니다. 남을 가르치면 내가 더 배우고, 글로 쓰면 시간을 넘어 남는다는 것. 미래를 내다보는 동물답게, 각자의 다음 5년을 그려 보며 모임을 마쳤습니다.

이날 진행 자료

방장이 준비한 슬라이드 10장입니다. 내용이 헷갈리면 여기서 먼저 보세요.



1 / 10

01 저마다의 타임머신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도구

만일의 사태에 대한 계획

- 달 착륙 실패할 경우 >> A급 사고까지 비상 대책 메뉴얼 마련
- 자유의지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신) >> 칼자루를 쥔 생각은 힘
- 타인의 마음의 배려 >> 선의의 거짓말?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묻고 따지고 투쟁

기억은 미래를 위한 것

- 스티븐 호킹 시간여행자들을 위한 파티 : 다음날의 초대장 >> 아무도 나타나지 않음
- 사람의 마음 : 과거, 현재, 잠재적 미래의 사건 사이에서 오간다.
- 최악의 기억상실증 : 영국의 피아니스트/지휘자 클라이브 웨어링 (바이러스 감염) >>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無
- 가상의 타임머신의 가장 주요한 기능 : 여러 사건들을 다시 방문 이를 서사적으로 연결,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
- 기억의 적극적인 재구성 (살인사건 목격)
- 기억은 앞으로의 생존과 번식에 미치는 결과



멘탈 타임머신

- 다양한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은 효과적인 예지력의 기본 (친구의 깜짝 생일 파티의 친구 반응)
- 연극의 비유 : 시나리오 >> 극장에서 관객 앞
- 실제 사건이 믿지 못할 버전으로 왜곡 >> 기억의 편향과 오류는 무한한 가능성 + 융통성 때문

미래에 관한 생각

- 과도한 준비성은 인간의 특징 (당신의 가방)
- 자신의 예측이 결국 옳은 것일지,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 끊임없이 묻고 또 고심
- 최선을 희망하지만, 최악을 준비

예지력

-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능력
- 반복된 오류 수정 (실험, 관찰, 가설, 예측, 검증) >> 순환
- 앞일을 생각한다는 것 >> 모든 행동에 스며듬
- 프로메테우스는 '예지력'이라는 뜻

02 미래의 창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호기심, 탐구, 잠재력, 촉적

호러스 웰스



- 영국 화학자 험프리 데이비 >> 아산화질소 흡입 >> 웃음가스
- 1844년 호러스 웰스(치과의사)
- 한 남성이 다리 사고 >> 아파하지 않음 >> 약물의 진통 효과
- 마취술

01

사피엔스 : 현명한 존재



사피엔스 진화



AI 출현

- 지구 전체를 지배하게 된 인간 >> 우리의 성공 비결 : 문화적 진화
- 환경에 적응된 형질, 수많은 돌연변이와 선택이 반복
- 작은 변화가 축적됨으로써 '진화' >> 문화적 학습의 역량 자체는 자연선택을 통해 진화

02

- 과도하게 모방하는 인간의 성향 >> 그 행위의 유용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 >> 문화의 효율적인 진화에 도움
- 미리 조합(레시피) >> 감각의 새로운 배합을 미리 경험한 능력
- 인류 문화의 진화 방식을 남다르게 만든 2가지 >> 가르치기, 혁신



모방

- 타고난 것이 아닐 학습된 형질

03

- 가르치는 행위를 한 개체가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여 학생의 학습을 독려하는 방식
- 말로 가르치는 것이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 대단히 강력한 방식
- 어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중요한 교훈이 됨

혁신



04

- 혁신은 이미 예지력 >> 미래 유용성을 인지했을 때 가능
-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 >> 항생제 페니실린



- 인간의 문화적 산물은 공들인 작품
- 우연히 얻어걸린 발견이라도 그 잠재력을 보고 뭔가를 시도할 때만 >> 혁신
- 쓰기 >> 책은 시간의 족쇄마저 끊어버림

03 자아의 발명

정신이란 모든 단계의 가능성이 동시에 발생하는 극장이다.

나만의 타임머신



- 연극 : 앞일을 내다보기 위해 기본적인 여러 능력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과정을 비유
- 무대 : 눈앞의 현실을 잠시 덮어두고 생각을 즐길 수 있는 수단
- 가상의 흉내 놀이 (18개월) >> 상상의 세계 >> 논리적 선택 (24개월) >> 나침반 바늘 보이지 않는 힘 신기 (5살)
- 행위자가 목표를 지니고 행동한다는 지향적 자세 >> 사건들을 연결하는 이야기 흐름 서사적 구조
- 실행 제어 능력, 억제 능력
- 어느 한 가지만 부족해도 예지력은 방해 받음

현재 집중 vs 미래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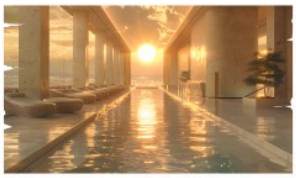
- 아기의 관심은 당장의 욕구를 충족 >> 상황의 위험성은 인지 못함
- 예지력은 위험을 인지하고 피하는 필수적인 기능까지 처음부터 한꺼번에 입력되지 않는다.
- 점점 미래를 통제하는 능력 >> 모두에게 보편적이라는 사실이 인간이 되는 것의 일부
- 현재 집중과 미래 추구는 긍정적 vs 부정적
- 마시멜로 실험 >> 장래의 성공 여부 측정
- 세상의 불확실성 >>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큰 보상보다는 당장 얻을 수 있는 작은 보상을 선택

잠재력, 상상력



- 쉽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부지런히 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 특정 기술을 숙달하는 데는 주도면밀한 연습 필요
- 1만 시간의 법칙 (말콤 글래드웰) vs 부족함이나 실패의 책임
- 새로운 능력을 얻는 데 연습은 필수적인 과정
- 의도적인 연습과 기술 습득의 연결고리를 다양한 맥락에서 명확히 이해
- 정보탐식동물 : 새로운 정보에 대한 열망이 강함
- 어떤 식이든 지속하려는 동기가 그만 두고 싶은 마음보다 커야 한다.
- 상상력은 장기적인 목표를 추동하는 힘, 목표 도달

지금의 나 : 미래의 나



- 예지력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모습의 자신을 맞이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함 (다른 이들의 시선 포함)
- 옷, 화장품, 향수, 미모, 젊음, 운동 >>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바꾸는 변화
- 살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알아내는 것이 큰 난제 >> 자기실현, 최고의 인간이 되고 싶은 강한 욕구
- 지나치게 많은 가능성과 선택 >> '자유로워질 저주를 받았다.'
- 과거에서 얻은 교훈(후회)으로 미래에 더 나은 결정
- 문화는 개인의 예지력과 소통함으로써 진화하고 상보적인 기술과 지식이 구성하는 사회를 만듦

04 뇌가 하는 일

인간의 뇌는 미래의 모델을 창조, 자신의 행동을 모델에 종속시키는 놀라운 장치

뇌는 뛰어난 추리꾼

- 밴드의 콘서트 / 카페에서의 일상 상상 >> 지각을 추론의 과정(헬름 홀츠)
- 뇌는 통계학자처럼 행동 >> 믿음에 따라 결정 >> 믿고 있던 사실을 갱신 (오류의 선별적 사용)

못말리는 시간여행자

- 과거를 기억, 미래를 상상 >> 기억의 재조합
- 유용한 일을 하려면 뇌의 활동 >> 행동으로 유도
-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휴식) vs 전두두정엽 통제 네트워크 (의도적으로 허락)

정신의 공간여행

- 자기 머릿속에서 만든 모델 >> 언제든지 탐험 가능 (집 창문 갯수) >> 이미 준비된 상황 대비
- 체계적 둔감법 >> 의도적으로 상상 >> 극복
- 학습은 엄청난 잠재력을 열어줌 >> 상상속 모델 구현



잃어버린 기억

- 켄트 코크런 >>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함 (좌우 반구의 측두엽 해마 망가짐)
- 과거를 잃어버리면서 미래에 대한 통제력 상실
- 뇌는 주도적인 역할 >> 작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예측을 생성 (가장 복잡한 장치)
- 뇌는 현재를 살기 위해 계속해서 다음을 예측 >> 지각과 동작의 협응 >> 내일과 그 이후를 시뮬레이션하는 뇌의 능력

성실한 미래 지도 제작자

- 2016년 3월 19일 이세돌 vs 알파고 바둑 대결 >> 은퇴(이길수 없기 때문)
- 강화학습은 도파민 뉴런이라는 세포의 활성화
- 뇌의 GPS (장소, 머리방향, 경계, 격자) >> 위치, 거리, 방향을 부호화한 정신적 지도
- 개념세포 >> 별개로 입력된 개념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음 >> 탈맥락화된 신경 코딩은 새로운 맥락에서 결합할 수 있는 요소 제공

멘탈 타임머신의 고급기능

- 멘탈 타임머신의 고급기능은 감정을 끌어들여 좋은지, 나쁜지 평가
- 기대하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
-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는 마음의 욕망은 실제 소유했을 느끼는 만족감보다 강도가 크다.
- 이별의 감정 >> 스토리텔링 메커니즘이 우릴 정상으로 만듦
- 예지력은 저주,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가져오기 때문 (세네카)
-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과하게 조심하는 것이 낫다.

05 다른 동물은 그저 현재에 갇혀 있는가

짐승은 현재에 일어나는 충동의 화신이다.
반면에 인간의 시야는 과거와 미래로까지 범위가 확장된다.



진화된 군비 경쟁

- 돌고개의 제한된 예지력, 범고래의 사냥
- 태양의 햇볕을 쬐고 있는 여우 원숭이
- 장기적인 규칙성에 맞춰 행동하는 생물이 더 그렇지 못한 생물에 비해 상당한 이점 (청솔모의 먹이 저장, 고래의 지방 저장) >> 상대적으로 융통성 부족 >> 새로운 고난에는 대응 불가
- 뻐꾸기와 그 숙주, 포식자와 먹잇감은 진화적 군비 경쟁에서 서로 대항하여 위협이나 사냥의 기회를 먼저 감지하도록 진화



상호배타적 가능성에 대한 이해

- 다른 동물도 여러 가지 대안을 시뮬레이션 할까?
- 침팬지 더 큰 보상을 위해 몇 분 기다리는 정도는 가능 >> 며칠, 몇 년, 평생의 지연의 증거는 없다.
- 운전 중 교차로에서의 노란불 >> 상호 배타적인 두 가지 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 >>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는 일은 없음



동물의 예지력

- 보노보와 우랑우탄 훈련 >> 필요한 도구 들고와 간식 획득
- 2017년 까마귀 돌을 주워 보상 >> 과거에 유용했던 물건을 고를 수 있고, 미래의 특정 사건에 유용할 도구를 선택
- 동물의 선견지명은 상당히 제한적, 많은 실수 동반



'정신적 시나리오'와 연결하려는 욕구

-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 시나리오 속 시나리오 제작 : 대안을 상상하고 그것을 더 큰 서사에 끼어 넣는 능력 >> 구성 요소들이 상호 간에 어우러지는 것
  - 정신적 시나리오를 교환하기 위해 우리의 정신을 하나로 연결하려는 욕구 >> 경험한 사람에게 묻기

야생의 짐승은 눈앞에 위험이 보이면 도망치고, 일단 벗아나고 나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로 인해 똑같이 고뇌한다.

06 4차원의 발견

예지력은 인간 진화의 주요 원동력









한 달짜리 연대표

-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의 모든 기술의 근원
- 생명의 40억년 역사를 한달로 축소
- 호모 사피엔스는 2분 전, 동굴벽화는 30초 전, 기계시계는 0.5초
- 인류가 침팬지와 다른 길을 걷게 된 계기 >> 숲이 우릴 떠난 것 >> 땅에 정착
- 포식자 투쳑 >> 공격을 미리 준비 >> 협력하지 않은 자는 자연선택 당함

혁신과 협력

- 호모 에렉투스가 제작한 아슐리안 석기 양날손도끼 >> 도구를 제작한 예지력
- 무장하고 재장전할 준비 >> 그러나 수천 세대 처음 그대로 >> 현생 인류와 거리
-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의 석기 도구 >> 사냥 계획 >> 원거리 사냥 시작
- 운반도구는 예지력-문화 피드백 고리
- 도구를 사용해 다른 물건을 운반한다는 발상은 물질문화의 축적과 운영 시발점

사회적 힘

- 행동 현대성 필수적인 4가지 : 정교한 계획, 혁신, 추상적 사고(시나리오), 상징(말)
- 인간의 정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능력 >> 불 사용 >> 불 주위에 모임 >> 사회적 힘
- 소통과 협력 : 사건을 의도적으로 재연 >> 의사소통의 언어 그 자체의 진화 >> 정신을 하나로 연결하고 협력하는 방식

종의 멸종

- 약속은 자신을 미래의 특정한 행동에 스스로 구속하는 행위
- 갈등과 물리적 폭력 >> 우리 조상의 생존과 번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침
- 지구의 전체 종의 99%멸종 추정
- 미개척지는 현지인과 협상 & 경쟁 >> 제한된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충돌
- 홉스의 함정 : 상호 불신은 서로 치게 만듬 >> 다음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 사소한 문제 (눈속임, 새치기)

07 시간여행의 도구

이성이 진정한 엔진은 살갗에도 머리뼈에도 붙어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리라.



- 태양이 지평선과 교차하는 곳 표시
- 별과 별자리 추적
- 천체의 비밀이 지구와 어떤 관계인지 관찰



달력의 발명 / 시계의 발명

- 미래를 상세히 예측하고 자연의 주기를 깨우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를 관리, 조절
- 달력과 농사와의 관련성에 관한 명확한 기록은 문자와 쓰기가 시작된 후에야 시작
- 바빌론에서 약 4,000년 전에 달력에 관한 기록 >> 354일, 윤달, 일식, 월식 예측 >> 미래의 실용적인 목적 사용, 마야인도 달력사용해 농사일 시기를 결정
- 남오스트레일리아의 야랄디족 7가지 구성(그림자변화) >>모래시계, 물시계 >> 17세기 네덜란드 크리스티안 하위헌스 최초의 시계(진자의 규칙적 운동) >> 20세기 수정의 진동의 디지털 시계 >> 원자시계(공진주파수)
- 우리는 언제를 더욱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문제로 만드는 도구를 사용하여 예측 능력 강화



예측과 예언, 기록하는 존재

- 미래를 통제하고 싶다면 인과 관계의 가설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됨
- 키케로는 "인간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하게 타당한 방법은 사건 사이에서 자연적인 연결성을 찾는 것"
- 아무리 형편없는 점괘라도 최소한 사람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 >>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를 맞이하도록 노력할 수는 있음
- 기록하는 능력은 실제로 사람들 사이의 거래를 강화
- 기록이 거래 당사자들을 정확한 조건에 묶어둔 덕분 >> 다양한 이해관계 >> 높은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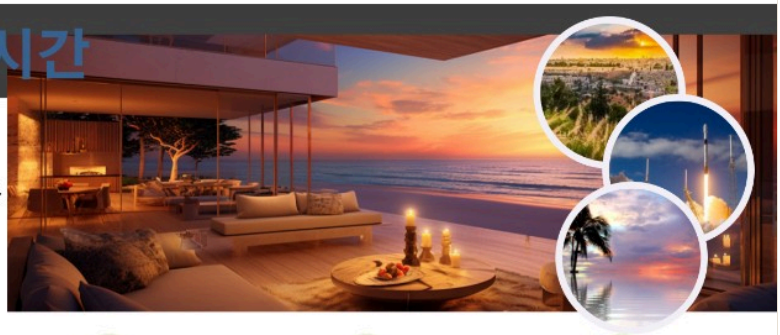


협력과 멘탈 타임머신

- 문자 체계는 협력과 질서를 강화할 수 있는 법과 조약, 절차 >> '함부라비 법전'
- 클레로테리온 추첨 기계 >> 정의의 심판이 왜곡 방지
- 돈 >>거래의 시간을 연장, 과거의 거래에서 허락되지 않았던 3차와의 거래 가능 >> 돈의 가치는 사람들이 미래에도 그것을 가치 있게 평가할 거라는 믿음에 기반
- 디지털은 타고난 멘탈 타임머신의 성능을 저하
  - GPS 장치 >> 공간 추론 장애 / 외부에 정보 저장 불가능 >> 기억의 오류
- 도구는 과거를 기록하고, 현재를 관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을 극적으로 변화
- 정신은 혁신과 불가분하게 얽혀 있으면서 세상을 뒷받침하는 약속의 미로를 만들고 있음

08 우리 시대의 시간

지금 우리는 인류의 시작점에 있다. 우리 앞으로 수만 년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며 해결책을 개선하고 그걸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다.



과학적 사고는 예지력의 새로운 방식을 창조 :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 좋든 나쁘든 과학과 기술은 세상을 변화 >> 인류세

예지력의 눈부신 성취 :
비행 기술, 의학 발전, 번식의 통제력, 효율적인 정보 교환 자연재해의 경고시스템 >> 인류의 번영에 중요한 역할

실패한 예지력이 초래한 재앙 :
자기 행동의 장기적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유일한 생물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

1 돌이킬 수 없는 티핑포인트 앞에 서다

- 우리 종이 멸할 수 있다.
-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성취 >> 어려운 도덕적 결정 >> 어떤 미래를 좇을지 선택
- 서식지 보호, 회복,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 유지 >> 안정성 갈망

2 사전부검, 실패를 가정하기

- 모두 다 예견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은 예지력의 부분
- 비현실적 낙관론, 가용성 휴리스틱, 기대수명
- 자신의 행동을 미리 약속하는 것이 해결책
- 사전 부검 실시, 자기 구속(율리시스의 밧줄)

3 장기적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의 협력

- 성공에 잡아먹히지 않을 방법?
- 핵전쟁, 기후변화, 생명공학적 팬데믹 등 위험을 줄이고 대비 >> 예지력 의존
- 예지력 자체는 윤리적 중립이며 위대한 선, 거대한 악 쓰일수 있는 능력 >> 변화, 성장도 아닌 균형 상태 목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유일한 동물'

각자의 길이 내일 다시 교차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생각해봅시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인간의 생각
앞으로 5년 후의 자신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가요?
미래를 예측하는 인간의 능력
미래를 예측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시간에 대한 인간의 통제력
과거에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다시 내릴 기회가 있다면, 지금과 다르게 선택할까요?
시간에 대한 인간의 인식
어떤 순간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고 느끼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관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중요한 인간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그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나요?
기술 발전과 시간의 관계
스마트폰이나 기술 덕분에 시간을 더 잘 관리한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더 분산된다고 느끼나요?

책미사에 함께하고 싶다면

주로 토요일 밤 9시, 줌에서 만나고 가끔은 직접 만납니다. 완독 못 해도, 듣기만 하는 청강도 괜찮아요. 첫 참여는 무료, 그다음부터 모임당 5,000원입니다.

- 다음 모임과 신청: https://espada4897.github.io/espada/
- 이 책의 진행 자료: https://espada4897.github.io/espada/book-b483973b.html